

다산포럼



임철순  
데일리임팩트 주필  
자유칼럼그룹 공동대표

지난 8월 31일 타계한 황경춘 씨는 격동기 한국 현대사를 살 자체로 증언한 언론인이었습니다. 1957년 AP통신 서울지국 기자로 출발한 이후, 주간 'Time' 서울지국 기자, '포춘' 등 미국 잡지의 프리랜서 등을 거쳐 자유칼럼그룹의 필진으로서 올해 2월 마지막 칼럼을 쓰기까지 66년간 언론 외길을 걸었습니다.

1924년 갑자생이니 내년이면 100세인데, 국내 최고령 칼럼니스트는 아쉽게도 99세로 펜을 놓았습니다. 그러나 2월 23일의 마지막 글이 '100세에 일기 쓰기의 의미'였으니 당신 자신은 올해가 100세라고 생각하며 생을 정리해온 게 분명합니다.

황경춘 기자는 어떤 분이었나. 우선 겸손하고 과묵했습니다.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지고 매사 아는 척, 논평과 훈수를 하는 게 보통이지만 그분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모임에서는 반듯하게 앉아 남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곤 했습니다. 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시대에 대한 관심에서 배움의 자세를

언론인 황경춘 (1924-2023)

흔뜨리지 않았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일어로 살아왔고 해방 후엔 영어로 일하다 보니 우리글이 서툴렀던 그분은 내가 한국일보에 재직 중이던 2006년에 칼럼을 읽고 메일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길 계기로 내가 공동대표인 자유칼럼에 2008년 1월부터 글을 쓰게 됐습니다. 글이 발표되기 전 '훈장님께'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보내 감수와 수정을 부탁했는데, 아버지별 부집존장(父執尊長)인데도 학생처럼 늘 내게 공손하고 정중했습니다.

또 당신과 거의 동갑인 일본 월간지 '문예춘추'(1923년 창간)와 국내 여자신문을 구독해 일본과 해외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빨리 알게 있었고, 돌보기로 컴퓨터 화면을 읽으면서 뉴스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말 장단 발음이 엉터리인 아나운서들, 일본 인명 표기가 잘못된 것 등을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적했습니다. 투병 중이던 5월 중순에도 전화를 걸어와 외래어 외국어 표기 문제를 글로 다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나는 수시로 궁금한 것을 여쭙거나 일본어 번역을 부탁해 귀찮게 했습니다.

그분이 다른 언론인들과 판이한 점은 건강관리와 장수입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습주와 과로가 자랑이었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철저한 자기관리로 일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꼭 맨손체조를 하고 술은 입에 대는 정도, 식사는 소식(小食)을 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 상처를 하고도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하면서 어릴 때부터 불어온 하모니카로 가끔 기분을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까지 일기를 썼습니다. 만 6세로 일본인 소학교에 입학한 뒤 쓰기 시작한 일기는 몇 번 중단됐지만, 20년 전 여생을 뜻있게 보내는 중요한 일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글에 썼듯이 일기 쓰기는 죽음만이 중단시킬 수 있는 일거리로, 매일매일 삶을 깊이 반성하는 값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걱정하는 것은 치매였습니다. 상처 후 자녀들과 함께 살게 되자 '자유로운 사생활'을 그리워하면서도 "돌보는 가족마저 알아보지 못하는 치매는 피하고 근엄하게 삶을 마감하고 싶다."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걱정과 달리 정신은 끝까지 맑았고, 마지막 입원 기간에 잠깐 섬망 증상이 있을 때 글을 써야 한다면서 간병하는 따님에게 무엇인가 기사를 쓰라고 했습니다. 임종 이틀 전 "이제 그만 쉬고 싶다."고 한 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쉬지 않고 시대와 사회를 호소해온 분다운 말이지만,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마음이 몹시 아렸습니다.

사람은 가능한면 아주 오래 살아서 무엇인가 이웃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분의 삶은 겸손한 내공을 바탕으로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지향하며 살아온 한평생입니다. 언론인은 결코 느슨하면 안 되며 생각과 말이 늙거나 낡거나 글이 묶으면 안 됩니다. 언론인의 일은 죽어서야 끝납니다. 그야말로 '국공진체 사이후이'(鞠躬盡瘁 瘁死而後已), '온몸으로 최선을 다하고 죽음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만두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분은 길이 떠나갔습니다.

청춘 특특

인간관계, 신뢰 형성의 기반



박희은  
조선대 국어국문학과 2년

인간관계, 이 네 어절로 이뤄진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친구, 가족, 연인 관계 등이 연상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 다양한 인맥을 형성해 나간다. 나와 타인과의 상호 지속적인 만남이 계속되면 결속력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마다 사고방식과 성격의 차이가 달라 상처받은 기억이 있지 않은가?

나 스스로 현재까지 건강하고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나는 본래 걱정과 근심이 많은 편이고, 감정을 진솔하게 말하지 않는다. 사소한 고민이라도 최대한 내 기준에서 해결하고자 했다. 친구가 고민으로 인해 염려하면 신경이 쓰이고 혹여 별거 아닌 일에 내가 너무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 차마 말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을 꺼냈다. "네가 좋아 하는 캐릭터 외에 너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나는 이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이 잠겼다. "나 자신을 좁은 울타리 안에 가두며 감정과 뚜렷한 주관을 표출하지 않은 채

눈치 보고 스스로 힘들게 만들었구나', '돌아쳐봤을 때 내가 그만큼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하고 생각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신뢰'라고 생각한다. 서로 불신하게 되면 그 관계는 더는 진전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계속될 뿐이다.

궁극적으로 원만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솔직해져야 한다. 상황에 따라 느끼는 감정이 천차만별이겠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지배되면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마음에 내재한 느낌을 솔직하게 표출하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바깥 풍경을 보기 위해 창문을 통해서 시야를 보듯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창문으로 본다면 어떻게? 소통의 창구인 언어를 기반으로 나와 타인의 감정과 마음을 공유하며 점진적인 유대감을 쌓아간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실천이라 생각한다. 인간관계는 일대일의 만남이 아니다. 상대방과 나의 소통과 만남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신뢰'는 확장된 연결고리로 볼 수 있다. 이 연결고리는 나와 타자의 물음을 통해 나온 진솔한 마음과 공감의 기반이 되어 결속력을 다지고 진취적인 발전을 이어나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삶을 영위함에 쫓기는 목표의 지향점과 포부를 고무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나와 타인이 협업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면 서로에게 시너지와 원동력이 되었기에 진전된 능률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원대한 목표와 성

과를 이룩해 내기 위해 함께했기에 타인과 나와 신뢰는 깊어지고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다.

이처럼 '삶'이라는 큰 그림 안에 인간관계를 다방면으로 형성해 나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순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나 또한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덕을 지니며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제라도 관계는 지속적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우리는 한 치의 미래 앞을 예측할 수 없지만 자신의 잘못된 언행과 불일치 등으로 인해 타인이 상처 받거나 인간관계가 한순간 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금이 간 유리처럼 틀어진 관계는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깨진 유리 조각을 다시 붙여도 습사리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커다란 불씨로 번지지 않도록 자신의 언행에 대해 심사숙고하며 역사사지의 자제가 필요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내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 없다. 만약 타인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옳다, 그르다' 식의 판별은 있을 수 없다. 더불어살아가는 사회이자 함께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다. 각자의 생각이 천차만별이기에 그들의 견해를 경청하고 너그럽게 함양하는 태도가 선포되길 바란다.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가장 큰 선물이다. 그 사람과의 신뢰가 두렵기에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는 멘토와 멘티가 되는 것이라 본다.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노래, 우리 가곡

다. 그 간장의 맛을 본 적도 없는데 맛있는 간장은 그 간장이라는 것이 뇌리 깊숙이 자리 잡아버렸고 새마을운동의 캠페인 송이었던 '새벽종이 울렸네'는 새벽부터 확성기로 들려주니 일을 할 수 있는 곳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따라 불렀다.

우리 가곡이 대중화가 되려면 현재 공영방송국에서 단 20분만 편성하여 일주일 중 5일만 방송하는데 민영 방송에서도 정규방송으로 1시간씩 편성하여 주옥같은 우리 가곡을 매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백화점이나 비행기, 코레일 내에서도 일정한 시간 우리 가곡을 들려주어야 한다. 지자체의 문화센터에서도 반드시 우리 가곡을 배우는 프로그램을 넣어 가곡과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그 중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고등학교에서 가곡을 배우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어 학생들에게 정서적 빈곤을 느끼지 않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는 세계의 모든 음악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 가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 작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 가곡이 살 수 있는 첫 번째 시장이 학교이건만 입시 위주에 밀려 청소년들도 가곡이 무언지 잘 모른다고들 한다.

우리 말로 쓴 아름다운 시에 선율이 입혀진 우리 가곡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자신을 다시 찾아주고 내면에 깊이 잠들었던 영혼을 일깨우고 위로하고 치유해주는 우리 가곡 애창 운동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어나야겠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난 뜻있는 이들과 함께 2008년 시민과 함께 하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를 창립했다. 달마다 새로운 가곡집을 만들어 무료로

제공하고 다 함께 부르는 노래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추억의 노래, 정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로 나누어 함께 부르고 신작가곡도 소개하는 가곡애창운동을 전개해 왔다. 즉석 연주와 개인별 연주의 기회도 주면서 우리 가곡 살리기 운동을 하다 보니 어느새 3000 곡 이상을 함께 부르는 동안 15주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 9월엔 창립 15주년 기념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가곡애창운동이 지극히 소수에 의해 우리 가곡이 지켜질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하는 가곡 애창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우리 가곡을 부르면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내 안의 내가 가지게 될 키고 일어나 잃어버렸던 나를 찾아주고 아름다운 시에 선율이 입혀진 곡을 흥얼거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스스로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품격이 높아짐을 느낄 수가 있다. 이제부터 누구라도 우리 가곡 부르기엔 한 번 참여해 보시고 나만의 애창 가곡 몇 곡쯤 가져보자. 우리 가곡의 매력에 빠지는 순간부터 가장 우아하고 멋진 옷을 입은 멋쟁이로 스스로 시인이 되고 나만의 성악가도 될 수 있다.

매일 열리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동일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오셔서 친교도 나누고 즉석 연주나 독창 연주에도 참여하고 청춘으로 회귀하는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며 함께 부르는 기쁨을 누리며 우리 가곡을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보자.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아주는 노래. 내 영혼을 일깨워주고 위로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최고의 명약인 우리 가곡을 불러보자.

社說

캄보디아 의료봉사 재개 광주 정신 이어지길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현지에서 대면진료와 봉사활동을 재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캄보디아 광주진료소(광주진료소)가 엇그제 캄보디아 캄퐁스푸(州)에서 광주 시민 봉사단 70여명과 함께 진료와 마을 환경정비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진료소는 광주시와 민간단체인 (사)아시아 희망나무, 광주일보사가 나서 2014년 캄퐁스푸에 설립한 의료 시설이다. 광주진료소는 코로나 19로 그동안 대면진료에 나서지 못했으나 코로나 엔데믹으로 3년 만에 현장에서 진료를 했다.

올해로 문을 연지 9년 째 되는 광주진료소는 의료 환경이 열악한 캄보디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광주진료소가 대면 진료를 개시하자 매일 150여 명이 줄을 섰고 진료소에서 차량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주민들도 방문했다고 한다. 의료진과 봉사단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캄퐁스푸 인근 주민을 위해 마을 교회에 이동진료소를 열기도 했다. 백내장 수술을 받

은 주민 15명을 비롯해 모두 320여 명이 의료진의 보살핌을 받았다.

광주진료소는 'K-컬처'의 전초기지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건립 중인 광주진료소 부설 문화센터와 게스트하우스는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 공간은 현지를 찾는 광주지역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점을 제공하는 등 시너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엔 캄보디아를 찾은 봉사단은 광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현지 대면진료 재개를 계기로 더 많은 의료진, 시민의 참여와 후원이 있따라 의료혜택을 늘리고 부설 문화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완공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사납금 인상' 갈등...상생 방안 모색해야

최근 광주지역 법인택시기사들이 택시운송사업조합(조합)의 사납금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1일 광주지역 택시기본요금에 인상됨에 따라 조합이 사납금을 3만원 인상하기로 하자 택시기사들이 수입감소를 이유로 반대에 나선 것이다.

10일 광주시와 민주노총 민주택시광주본부(노조)에 따르면 지난 7월 조합은 노조에 '운송수입금 기준액(기준액)'을 기존 금액에서 3만 2000원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기준액은 지난 2019년 사납금 제도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로 변경되면서 신설됐다. 전액관리제는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전체 수입금을 회사에 낸 뒤 일정 비율에 따라 월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는 형태다. 즉, 택시 기사들이 매일 매출액을 법인에 입금하면 사측이 고정급여와 성과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다.

별이 적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고 기사가 사측에 납부한 하루 매출액의 49%(야간수당·근속수당 포함)를 고정급여로

받는다. 또한 하루 수입이 반일운전 기사(2인1차) 기준 하루 16만 4500원, 전일운전(1인1차)기사 19만 9000원을 초과하면 성과급 형태로 사측이 초과금액의 40%를, 기사가 60%를 가져간다.

문제는 이번 기준액 상향으로 택시노조와 조합측이 갈등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다. 조합측은 물가와 기름값 인상으로 경영수지가 악화돼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조는 택시요금에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되면서 승객 감소로 수입이 줄어들었다며 맞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더라도 정작 양측의 갈등을 증대할 광주시는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라 이유로 방관하고 있다. 만약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합과 노조도 교통 부담 차원에서 한발짝 양보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여름은 전통적으로 극강이 최고 대목으로 꼽힌다. 무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방학과 휴가 등이 겹쳐 관객들의 발길이 풀리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 영화사들도 여름 시즌에 자본과 스타들을 대거 투입한 대작을 내놓는다. 올해는 코로나 19 대유행 이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맞는 첫 여름이어서 기대가 컸다. 하지만, 결과는 참참했다. 제작비 200억 원 내외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국내 대작들은 대부분 손익분기점에 도 못 미쳤다. 실제 국내 영화의 7-8월 관객은 1271만 명으로 오히려 지난해 1849만 명에 비해 30%나 줄었다.

영화와 정치

이동영상서비스(OTT) 확산과 급등한 관료료 등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지만 근본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해 수준의 관객을 동원, 나름 선전한 외국 영화들의 실적이 이를 반증한다. 결국 국내 제작사들이 시장의 환경을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깝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관통하는 깊은 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에 한 발 앞서는 창조적 시선과 콘텐츠 개발이 생존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서 영화계의 분투가 요구된다.

영화계의 대목이 여름이라면 정치권에선 총선이다. 총선 승리가 집권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년 총선에 대한 전망은 암울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여권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야권이 내전과도 같은 증오의 정쟁을 이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또 비전을 놓고 경쟁해 가보다 서로의 약점만 확대는 모습이 다. 여권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총선 승리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정쟁은 이처럼 스스로의 성찰과 혁신을 저해, 미래 역량을 약화시킨다.

영화계에서의 흥행은 정치권에선 투표율로 볼 수 있다. 민심 기저에 깔려있는 정치적 피로도를 감안하면 내년 총선 투표율은 역대 최저가 예상된다. 어느 진영이 승리하더라도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어려워 상당한 후폭풍마저 우려된다. 그러도 희망이 미래로 가는 길이 되듯이 내년 4월, 정쟁의 포연 속에서도 국민적 집단 지성이 꽃 피는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결과를 기대해 본다.

/임동욱 선임기자 겸이사

기고



박원자  
시인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부회장

우리는 날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음악과 더불어 살고 있다. 지상파 방송에서는 최고의 전성시대를 누리고 있는 트로트나 아이돌이 부르는 K-pop을 방송 또 재방송하고 경쟁이나 하듯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 그런 노래들이 유튜브에도 도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정서가 가득 녹아있는 우리의 가곡은 다른 장르에 비해 음악적 가치는 뛰어나나 존재가 너무 미미해 자칫하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곡은 흔히들 추억의 노래로 노인들만 부르는 노래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나 가곡은 추억의 노래가 아니다. 시대를 반영한 우리의 삶의 정서가 그대로 담겨 있는 현재의 노래이며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지역 간의 벽을 허무는 너와 나의 노래로 우정의 노래이다. 정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 우리 시와 우리 말을 살려주는 생명의 노래로 애국자가 되게 하며 심장의 고동이 뛰게 하는 청춘의 노래이며 현재 진행형 살아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래이다.

어린 시절 '보고는 몰라요. 들어서도 몰라요. 맛을 보고 맛을 아는 XX간장 XX간장.'이라는 광고가 있었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